

이동양태-결과동사의 상보성과 동사 climb에 대해*

김 경 학
(수원대학교)

Kim, Kyoung-Hark. (2014). On the Complementarity of Manner of Motion and Result Verbs and the Verb 'climb'. *Language Research*, 50.3, 601-625.

This paper deals with the complementarity of manner of motion and result verbs and the problem case of the verb 'climb'. In section 2, I review Levin (2009)'s argument alternations and classification of manner and result verbs. In section 3, I will discuss the problem case of the verb 'climb'. Then two explanations of the verb 'climb' will be discussed and then some problems and disadvantages of their explanations are pointed out. In section 4, I discuss Goldberg's (2010) profile theory and Frame Semantic and its advantages. Then I modify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8)'s event structures of manner and result verbs and the event structure of the verb 'climb' in the point of profile theory. Finally I argue that the modified event structure of the verb 'climb' in the point of profile theory has many advantages (**The University of Suwon**).

Keywords: complementarity, manner of motion and result verbs, argument alternations, event structures, Frame Semantic, profile theory

1. 서 론

영어 이동양태 동사(manner of motion verbs)는 다음 (1a)의 roll처럼 이동하는 행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로, 그 이동결과는 의미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별도로 어디까지 갔다는 결과의 목적지를 첨가해 주어야 한다. 이동결과 동사(result verbs)는 다음 (1b)의 enter처럼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그 결과 어디에 이르렀다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러나 이동방법은 의미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므로 별도로 running 등의 이동방법을 첨가해 주어야 한다.

- (1) a. Carey rolled the ball *into the corner* in a minute.
- b. He enter the hall *running/hopping/walking/strolling*.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수원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다음 (2a)는 영어의 이동양태동사이고, (2b)는 이동결과동사이다.

- (2) a. 이동양태동사: amble, bounce, crawl, fly, hop, jog, jump, gallop, limp, roll, run, scamper, skip, swim, trudge, walk, wander
 b. 이동결과동사: fall, rise, arrive, reach, enter, leave, depart, exit, come, go, ascend, descend

이들 동사들은 의미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문법구조에서도 쓰임새가 달라 서로 상보적이다.

- (3) a. Pat ran. (activity)
 b. Pat ran *to the beach*. (directed motion)
 c. Pat ran *herself ragged*. (change of state)
 d. Pat ran *her shoes to shreds*. (change of state)
 e. Pat ran *clear of the falling rocks*. (directed motion)
 f. The coach ran *the athletes around the track*. (causation)
- (4) a. The students went.
 b. The students went *to the beach*.
 c. *The students went themselves ragged.
 d. *The runner went his shoes to shreds.
 e. *The pedestrian went clear of the oncoming car.
 f. *The coach went the athletes around the track.

(3)의 동사 run은 이동양태동사로 (3a)처럼 뛰는 행위(activity)만을 나타내는 행위동사 구문으로 쓰인다. 그러나 (3b)처럼 이동 목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to the beach*를 동반해서 ‘뛰어서 어디로 갔다’는 경로이동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또 (3c)처럼 재귀대명사와 결과상태의 형용사 *ragged*를 첨가하여 ‘뛰다보니 온몸이 다 지쳤다’는 상태결과구문으로도 쓰인다. (3d)처럼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non-subcategorized object) *her shoes*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to shreds*를 첨가하여 ‘뛰다보니 신발이 갈가리 찢어졌다’는 결과구문으로도 쓰인다. 또 (3e)처럼 형용사구 *clear of the falling rocks*를 첨가하여 ‘뛰어서 낙석을 피했다’는 경로이동결과구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3f)처럼 ‘누구를 어디로 뛰게 했다’는 사역구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동양태동사는 다양한 형태의 구문으로 논항실현이 되어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4)의 동사 go는 본향적 이

동동사(directed motion verbs)의 결과동사로 (4b)와 같은 경로이동결과구문으로는 논항실현이 되지만, 그 밖의 구문으로는 논항실현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동사 *climb*은 다음 (5a)에서는 이동결과동사의 의미로 쓰였지만, (5b)에서는 이동양태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5) a. Kelly climbed the tree.
b. John climbed down the mountain.

(5a)의 동사 *climb*은 ‘어디로 올라가다’란 의미로 쓰여 이동행위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 나무위에 올라가 있다는 결과의 의미가 있는 이동결과동사로 쓰였다. 반면 (5b)의 동사 *climb*은 ‘힘들여 이동하다’란 의미로만 쓰였고, 이동의 방향과 결과는 전치사구 *down the mountain*이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동양태동사로만 쓰인 경우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2절에서 Levin & Rappaport Hovav (2010) 등을 중심으로 양태, 결과동사의 분류와 통사적 의미적 상보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3절에서는 양태-결과동사의 상보성에 반례처럼 보이는 동사 *climb*에 대해 이동양태동사라는 입장과 양태와 결과동사의 두 의미로 다 쓰여도 이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보성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 4절에서는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를 살펴보고, 사건구조상의 윤곽부여원리로 동사 *climb*의 문제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양태동사와 결과동사의 상보성

2.1. 양태동사와 결과동사

Levin (2009)은 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비상태동사(nonstative verbs)를 대략적으로 양태동사와 결과동사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였다. 양태동사는 동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라면, 결과동사는 동적인 행위를 해서 그 결과인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 (6) a. I just *wiped* the table, but it's still dirty/sticky/covered in crumbs.
b. *I *cleaned* the table, but it's still dirty/sticky/covered in crumbs.

(6a)의 동사 *wipe*는 표면접촉의 양태동사로 결과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하므로 테이블을 닦았으나, 아직 더럽다는 말이 가능하다. 단 결과의 의미를 첨가하여 복합

사건구조의 문장 ‘I wiped the table clean.’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한편 (6b)의 동사 clean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상태변화의 결과동사로, 테이블을 깨끗이 청소했으므로 테이블이 깨끗해졌다는 결과의 의미를 함의한다. 즉 아직 더럽다는 말이 불가능하다.¹⁾

한편 양태동사는 어휘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 즉 양태를 함의하지만 그 결과를 함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첨가하여 다음과 같은 파생 결과구문(derived resultative)으로 쓰여야 한다.

- (7) a. I wiped the entire table *clean* in three minutes.
 b. Carey rolled the ball *into the corner* in a minute.

동사 wipe는 표면접촉의 양태동사로 얼마를 닦아야 다 닦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비결과적 양태동사이다. 그러나 결과 상태인 clean과 같은 형용사구, 즉 AP (XP의 일종)술어를 첨가하여 (7a)와 같은 파생 상태변화 결과구문으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테이블을 다 닦아서 깨끗해졌다’는 파생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동사 roll은 원래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로 공을 굴려서 어디로 가 있다는 이동결과적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비결과적 이동양태동사이다. 그러나 (7b)처럼 이동 목적지 *into the corner*와 같은 전치사구 PP (XP의 일종)를 명시적으로 첨가해 준다면, 어디로 가 있다는 위치변화의 결과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그 결과 어디로 가 있다’는 파생 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한편 결과동사는 어휘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양태 즉 방법에 대해서는 어휘적으로 함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별도의 부사구로 수식하여 첨가해 줄 수 있다.

- (8) a. I cleaned the dress *by soaking it in hot water/pouring bleach over it/saying “abracadabra”*.
 b. He enter the hall *running/hopping/walking/strolling*.

(8a)의 동사 clean은 상태변화의 결과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결과동사로 옷을 깨끗

1) Rappaport Hovav & Levin (2010:2)는 어휘적으로 동적인 행위방식을 나타내는 양태동사와 결과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결과동사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i) a. 양태동사(manner verbs): wipe, nibble, rub, scribble, kick, sweep, flutter, laugh, hop, jog, limp, roll, run, swim, walk
 b. 결과동사(result verbs): clean, cover, empty, fill, freeze, kill, melt, open, faint, die, arrive, enter, leave, exit

곳이 세탁했으므로 옷이 깨끗해진 결과의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옷을 어떤 식으로 세탁하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동사의 어휘적 의미로만으로는 알 수 없다. 즉 별도의 수식어귀 *by*-어귀로 수식해 주어 나타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8b)의 동사 *enter*는 위치변화의 결과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이동결과동사로 홀에 들어왔으면 현재 홀에 있는 결과의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홀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사 *enter*의 어휘적 의미로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수식어귀로 수식해 주어야 한다. 양태동사와 결과동사는 이처럼 의미적으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을 지니고 있다. 즉 양태동사는 행위의 방법을 어휘적으로 함의하나 행위의 결과를 함의하지는 못하고, 결과동사는 행위의 결과는 함의하나, 행위방법은 함의하지 않는다.

2.2. 통사적 상보성과 이동결과동사

양태동사와 결과동사는 의미적으로도 상보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통사적인 논항실현에 있어서도 상보적인 분포를 한다.

- (9) a. Leslie swept/scrubbed (*the floor*) this morning.
 b. The child rubbed *the tiredness* out of his eyes.
 c. John *kicked at* the ball.
 d. John hit my arm./John hit me on my arm.
 e. John hit the fence with a stick./John hit a stick against the fence.

양태동사는 (9a)처럼 대상인 *floor*가 통사적으로 생략될 수가 있다. 즉 비명시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다. (9b)처럼 순수 본질적 참여자는 생략되고, 동사의 의미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nonsubcategorized object*)인 *the tiredness*를 목적어로 표현하여 결과구문으로 확대하여 쓰일 수 있다. (9c)처럼 전치사 *at*을 동반한 시도구문으로 자동사처럼 쓰일 수 있다. (9d)처럼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목적어 구문에서 신체소유자를 대신 목적어로 내세우는 신체부위 논항교체를 허용한다. (9e)처럼 표면접촉의 장소와 도구를 모두 목적어로 실현 시킬 수 있는 *with-against* 교체를 허용한다.

반면에 다음의 결과동사는 이런 통사적 특성이 없다.

- (10) a. John broke * (*the vase*).
 b. *She broke the mirror *thin*.
 c. *John broke at the vase.

- d. John broke my arm./*John broke me on my arm.
 e. Sam broke the fence with the stick. (≠ Sam broke the stick against the fence.)

(10a)처럼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만 쓰이지, 목적어가 생략될 수 없다. 또 결과동사는 이미 결과의 의미를 어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타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10b)처럼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구를 첨가하여 복합타동사 구문으로 쓰이지 않는다. (10c)처럼 전치사 at을 동반한 시도구문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10d)처럼 신체부위 논항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10e)처럼 with-against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미적으로도 서로 달라 상보적이어서, 통사적인 논항실현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상보적 분포를 한다.

Levin & Rappaport Hovav (2010:2)는 이를 ‘비상태동사는 어휘적으로 양태동사와 결과동사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쓰인다(Manner and result meaning components are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a verb lexicalizes only one.)’는 상보성의 원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위치변화의 이동동사를 포함하여 양태동사와 결과동사를 세분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1) a. hit, kick, pour, shake, shovel, slap, wipe, ...
 b. amble, crawl, hop, jog, limp, run, swim, walk, ...
- (12) a. break, crack, fill, empty, melt, open, shatter, ...
 b. arrive, reach, enter, leave, exit, (fall, come, go, rise, ...)

(11a)는 행위의 방법을 나타내는 표면접촉의 행위양태동사이고, (11b)는 이동 방법을 나타내는 이동양태동사이다. (12a)는 상태변화의 결과동사이고, (12b)는 이동경로변화의 이동결과동사이다.

한편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0)은 (12b)의 이동결과동사는 정해진 이동방향으로 이동하는 본향적 이동동사(inherently directed motion verbs)로 이동경로상의 위치변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척도변화동사(scalar change verbs)로 보았다. 이때 이동경로상의 위치변화의 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하고 있다.

- (13) a. arrive, depart, enter, exit, leave, reach
 b. advance, approach, recede, come, go

c. ascend, descend

(13a)의 arrive 등과 같은 본향적 이동동사는 정해진 이동방향으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아니거나를 정할 수 있는 양분적(two-point) 유한척도의 이동 결과동사이다. (13b)의 come 등과 같은 본향적 이동동사는 사회맥락적으로 화자나 청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정해져 도착점이 있는 유한척도 이동 결과동사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와야 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동경로상의 정도(path scales)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분적(multi-point) 유한척도의 이동 결과동사이다. 한편 (13c)의 ascend, descend 등의 본향적 이동동사는 이동방향의 척도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동사이지만, 공간적인 이동경로상의 정도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척도의 이동결과동사이다. 즉 어디까지 올라가야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위치변화의 척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척도의 이동결과동사이다. 따라서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0)은 본향적 이동동사인 이동결과동사는 정해진 이동방향으로 이동하여 척도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척도변화의 결과동사이지, 반드시 목표지점에 도착했다는 완결성이 있는 결과동사는 아니라고 본다.

3. 동사 climb의 문제점

3.1. 동사 climb의 문제점과 근본적으로 이동양태동사라는 주장

Fillmore (1982:32)는 동사 climb이 기어서 오르내리는(clambering) 이동양태를 나타내는 이동양태동사로도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상의 척도변화인 위로(upward)라는 이동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이동결과동사로도 쓰인다고 보고 있다. 다음 (14a)에서 주어인 Kelly가 나무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는 이동경로상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동결과동사의 의미로도, 또 팔, 다리 및 몸을 이용하여 힘들여 기어오른다는 이동양태의 의미로도 다 쓰이고 있다.

- (14) a. Kelly *climbed* the tree.
 b. The train *climbed*.
 c. ??The train *climbed down* the mountain.

또 Jackendoff (1985:278)도 동사 climb이 이동양태와 이동방향을 동시에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았다. (14b)에서 동사 *climb*은 주어가 비록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무생물인 기차이지만 중력 등의 힘과 대항하여 힘들게 기어가는 이동양태도 나타나고, 중력과 대항하기 때문에 위로 이동하는 이동방향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동사 *climb*의 의미 속에 위로 이동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하는 전치사 *down*과 같이 쓴 (14c)가 어색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사 *climb*은 이동양태동사와 이동결과동사의 의미로 다 쓰여 상보성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보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동사 *climb*은 근본적으로 이동양태동사라고 가정하고 있다. (14c)의 동사 *climb*은 이동양태의 의미로 쓰인 경우로 *climb down*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본다. 그 증거로 Geuder and Weisgerber (2008)와 Geuder (2009)의 다음 예문을 들고 있다.

- (15) a. Before noon the train *climbed down* to a green valley which contained a cluster of Swiss chalets, ...
 b. By the time the ATC informed them about the altitude of the Boeing, the plane had *climbed down* to 14496 feet.
 c. Once the bus *climbed down* the ghat, we all were in the Kokan region and few kilometres away is Chiplun.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게 이동하는 무생물인 기차, 비행기, 버스이지만, 반드시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므로 *down*과 같이 쓰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동사 *climb*의 의미성분에서 반드시 위로라는 이동방향이 포함될 필요도 없고, 2) 이동양태도 인간의 사지와 같은 신체만 이용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Geuder and Weisgerber (2008:26)처럼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여(force exertion against gravity) 이동한다는 이동양태의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 위의 예문 (15)는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중력에 대항하여 조심스럽게 힘들여 이동하는 이동양태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이때 이동방향은 동사 *climb*의 어휘적 의미성분이라기보다는 다른 전치사나 문맥상으로 추론되는 의미로 본다.

2) 동사 *climb*의 어휘적 의미에서는 다음 예문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도 상관이 없다.

- (i) a. The children *climbed* on the jungle gym all afternoon.
 b. The backpackers *climbed* all day.

(ia)에서 어린이들이 정글짐을 탄다고 할 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 가능하다. (ib)에서 등짐지기는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 (16) a. At the completion of mating, the snails separated, the top snail *climbed down* and the snails crawled away from each other.
- b. As this snail *climbed down*, his shell was pulling him.
- c. Watch this crazy snail *climb across* the tops of my plants, and bend them over to the glass ...

위 예문에서 동사 *climb*은 팔, 다리가 없는 달팽이의 이동양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달팽이, 무생물인 기차, 비행기, 버스를 포함해서 이동체가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여 이동하는 이동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³⁾

한편 앞 예문 (14a)처럼 나무 등에 올라가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일 경우 위로 올라간다는 이동방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도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13)는 위로라는 이동방향은 동사 *climb*의 어휘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목적어인 나무와 세상지식과 같은 맥락적 의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열매를 따든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음처럼 타동사로 쓰여도 적당한 문맥만 주어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의미도 가능하다.

- (17) a. ‘Bring the Governor’s reply straight back,’ shouted Master Mace as Mungo *climbed the rope ladder into* the ship’s rowing boat.
- b. Marian *climbed the rope ladder into* the ship unaided, and was back on board within 15 minutes of jumping.

(17a)의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트를 타는 경우이고, (17b)에서는 올라가 타는 경우이다. 즉 이동방향은 타동사로 쓰인 동사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와 문맥적 상황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위의 경우 전치사 *into*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into*는 속안으로란 의미이지 아래나 위로란 의미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절벽, 사다리를 탄다고 하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경우를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예문도 올라가는 의미로 쓰인 경우가 훨씬

3)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12)는 동사 *climb*은 위로 올라가는 본향적 이동동사의 척도변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가능하여 본향적 이동동사의 결과동사가 아닌 양태동사로 분석하고 있다.

(i) “Bring the Governor’s reply straight back”, shouted Master Mace as Mungo *climbed the rope ladder into the ship’s rowing boat*.
(NOTE: climbing is from a ship to the ship’s rowing boat, i.e. downward.)

많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처럼 내려가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인 *climb*도 이동양태를 나타내지, 위로라는 이동방향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⁴⁾

- (18) a. You *climb the ladder down into* the crew quarters, and encounter a Protagonist, lying on a cot and brooding.
 b. Once a mother came with three or four of her babies and one was stuck on the roof since it was too afraid to *climb the tree down* to join the others ...

이는 동사 *climb*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슷한 의미의 이동양태 동사에도 해당된다.

- (19) a. hike/ride the Appalachian trail
 b. swim the Channel

(19a)의 동사 *hike*와 *ride*는 오솔길 등을 따라(*along*) 간다는 경로의 의미가 내포된 것처럼 보이고, (19b)의 동사 *swim*은 가로질러(*across*) 수영한다는 경로의 의미가 내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 예문 (20a)에서 동사 *ride*는 아래로(*down*)란 의미로, (20b)에서는 위로(*up*)란 의미로 쓰였지 따라간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

- (20) a. He was descending a hill of a four-lane arterial, on a bicycle equipped with the all-reflector system of nighttime protection that is required by federal regulation, but not using a headlamp. ... I testified to two accurate ways to determine speed on a slope. The first is plain experimentation. *Ride the slope* and see what speed develops.
 b. ...the cart inched up the winding slant of the hill. ... Martin *rode the slope* glancing at the sky, watching the double file of muscle- legged beasts lean straining with the cart against the

4) Geuder (2009:132)는 사람들이 동사 *climb*에 위로라는 이동방향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아마도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여 기어가는 의미라면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추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long incline.

따라서 동사 *ride*에는 *along*이라는 이동방향의 경로가, 동사 *climb*에는 *upward*라는 이동방향의 경로가 기본방향(*default direction*)으로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이지, 실제 어휘적으로는 이런 이동방향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climb*, *ride* 등의 동사는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척도변화의 이동결과동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동양태동사라고 주장한다.

3.2. 이접적이라 상보성의 반례가 아니라는 주장과 문제점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동사 *climb*이 근본적으로는 이동양태동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접적(*disjunctive*)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보성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Kiparsky (1997:490)의 다음 주장을 인용하여 동사 *climb*이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여도, 힘들여 기어가는 이동양태의 의미와 위로라는 이동방향의 의미성분이 동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접적(*disjunctive*)으로 둘 중 하나로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 (21) a. John *climbed down* the mountain.
 b. The train *climbed up* the mountain.

(21a)의 동사 *climb*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down*과 같이 쓴 것으로 보아 위로라는 이동방향은 나타나지 않고, 힘들여 기어가는 이동양태만 나타난 경우이다. 반면에 (21b)에서는 힘들여 기어간다는 이동양태의 의미가 아니라, 전치사 *up*과 함께 위로라는 이동방향만을 나타낸 경우라고 설명한다. Kiparsky (1997)는 주어 무생물인 기차이기 때문에 사지와 몸을 이용한다는 이동양태가 적용될 수도 없고, 이동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예도 이런 이동방향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22) a. The plane/elevator *climbed*.
 b. Smoke *climbed* slowly and the falling sun was coloring it through...

위 예문에서 동사 *climb*은 주어진 비행기, 승강기, 연기가 위로 이동한다는 이동

방향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사지가 없는 비행기, 승강기, 연기, 기차 등은 사지를 이용하여 힘들여 기어간다는 이동양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동사 *climb*은 이동양태와 이동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나타내므로 이접적으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도 동사 *climb*이 비행기, 승강기, 연기와 같은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아니라,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가격 및 비용, 인플레이션 및 비교용률과 같이 쓰일 때도 위로라는 이동방향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23) a. The prices/cost *climbed*.

b. Despite the new measures, the inflation/unemployment rate *climbed*.

가격 및 비용이 오르거나, 인플레이션 및 비교용률이 오르는 경우 위로라는 이동방향이 함의되어 있다. 이들 주어는 모두 척도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가치, 비율, 수 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23)처럼 이동방향을 나타내어 이동결과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 사지를 이용하여 힘들여 기어간다는 이동양태나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여 이동한다는 이동양태의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가치 척도가 위로 증가한다는 의미로만 쓰이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즉 Kiparsky (1997)처럼 이동양태의 의미와 무한척도의 이동결과동사인 위로라는 이동방향의 의미성분이 동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접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양태와 방향(척도변화)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보성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이와 같이 위로라는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동사 *climb*은 다음 동사 *rise*에 비유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24) a. The prices/temperature *climbed/rose*.

b. The prices *plunged/soared*.

(24a)의 동사 *rise*는 *climb*과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 또 (24b)의 동사 *plunge*와 *soar*도 이런 유형의 동사에 해당한다. 물속 등으로 뛰어드는 의미의 동사 *plunge*는 아래로란 이동경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본 의미는 급하게 뛰어드는 이동양태의 의미이고, 밑으로란 이동경로는 문맥적으로 함축되는 의미일 뿐이다. 반대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의미의 동사 *soar*는 높이 위로란 이동경로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본 의미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동양태의 의미이고, 위로 높이란 이동경로는 문맥적으로 함축

되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24b)처럼 가격 등의 가치, 수량, 척도 등을 나타내는 주어와 같이 쓰일 때는 이동양태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동경로의 방향의 의미로만 쓰인다. 즉 이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의 주장은 상보성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예외처럼 보이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다. 즉 동사 *climb*이 기본적으로 이동양태동사라면, 별안간 어떻게 근본 어휘의미에 없었던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척도변화의 결과의미가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별도로 어휘규칙이나 화용규칙을 설정하여 설명해 주어야 하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다음 함축적인 의미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동양태의 의미가 근본 의미이고, 이동경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는 문맥적으로 함축된 의미라면, 이런 함축된 의미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 이접적이어서 (24)와 같은 경우 근본의미인 이동양태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동방향만 나타낸다고 보았는데, (24a)에서 동사 *climb*에는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게 이동한다는 물리적인 이동양태의 의미는 없지만, 단순히 오른다는 의미 외에도 적어도 동사 *rise*, *soar*와 다른 어휘적 문체상의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격이 힘들게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이동양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4b)의 경우에도 비유적으로라도 급하게 떨어지거나 급속도로 오르거나 하는 이동양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보성을 어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기 위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만 쓰인다는 이접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함축적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4. 윤곽부여원리와 동사 *climb*의 사건구조

4.1.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

틀 의미론(frame semantics)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빗변(hypotenuse)과 원의 지름(diameter)은 전체적인 직각삼각형과 원이라는 틀에서 모습(profile)으로 윤곽부여된 특별한 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 (25) a. That's not the diameter. (It is the circumference.)
 b. They didn't divorce. (They are still married.)
 c. Obama and Clinton returned from the campaign trail to vote.

(25a)의 명사 **diameter**는 원이라는 배경적인 틀을 전제로 하여 원주(**circumference**)가 아니라 직경의 선을 모습으로 윤곽부여 하여 나타낸 것이다. (25b)의 동사 **divorce**는 결혼한 부부라는 배경적인 틀을 전제로 하여 법적으로 헤어지는 사건을 모습으로 윤곽부여 하여 나타낸 것이다.⁵⁾ (25c)의 동사 **return**은 갔다 왔다하는 여행이라는 틀 속에 이전에 먼저 여행한 사건을 전제로 하여 돌아오는 사건을 모습으로 윤곽부여 한 경우이다.

한편 양태동사로 보았던 동사 **write**도 무엇인가 쓰게 되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휘갈겨 쓰거나, 낙서하는 의미의 동사 **scribble**은 전형적인 양태동사로 분류되었지만 낙서한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다. 또 비슷한 의미의 동사 **scrawl**도 글자, 그림 등을 아무렇게나 휘갈겨 썼다면 휘갈겨 쓴 글자나 그림 등이 남게 된다. 또 **jot down**도 무엇인가 간결하게 적거나 간단히 메모했다면 그 메모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동사들은 쓴다는 행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 양태동사이지만 모두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다.⁶⁾ 즉 양태와 결과는 반드시 상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같이 존재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5) **weekday**와 **weekend**는 다음 그림과 같은 동일한 틀을 공유하지만, 그 틀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틀 구성요소에 윤곽부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i) a. **weekday**

Mon.	Tue.	Wed.	Thu.	Fri.	Sat.	Sun.
-------------	-------------	-------------	-------------	-------------	-------------	-------------

b. **weekend**

Mon.	Tue.	Wed.	Thu.	Fri.	Sat.	Sun.
-------------	-------------	-------------	-------------	-------------	-------------	-------------

동사 **buy**, **sell**, **charge**, **pay**를 다음 (ii)의 그림과 같은 상거래 틀 속에 있는 각각의 틀 구성요소 중에서 어떤 틀 구성요소에 윤곽부여 되는가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ii) a. **buy**



b. **sell**



c. **charge**



d. **pay**



위의 네 그림은 두 동사 **buy**와 **pay**가 **BUYER**에 윤곽부여함으로써 상거래를 기술하는 반면에, **sell**과 **charge**는 **SELLER**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iii) a. David bought an old shirt from John for ten pounds.
- b. John sold an old shirt to David for ten pounds.
- c. John charged David ten pounds for an old shirt.
- d. David paid ten pounds to John for an old shirt.

6) 한편 틀 의미론에서는, 원형적인 동사와 비원형적인 동사로 설명한다. 쓰기 틀은 쓰는 개인, 개인이 가지고 쓰는 도구, 쓰기가 행해지는 표면, 쓰기 행동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write**가 이 틀에 가장 원형적인 동사이며, **sketch**, **draw**, **paint**, **scribble**, **autograph**, **scrawl**, **pen**, **jot down**, **pencil**, **type**, **transcribe**, **copy**, **address**와 같은 동사들은 쓰기 틀을 바탕으로 원형에서 일탈된 동사들이며, 이 모든 동사들은 서로 가족담음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때 쓰기 틀에는 행동의 결과가 들어있다.

Goldberg (2010)는 이동동사의 경우도 상보적으로 반드시 이동방식의 양태와 이동방향의 의미 중 하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이동양태와 이동방향을 동시에 다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26) a. She scaled the mountain.
 b. The avid skier schussed himself silly.

(26a)의 동사 *scale*은 ‘기어오르다’는 의미로 기어오를 때 온 몸을 사용하는 양태와 위로 이동한다는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26b)의 동사 *schuss*는 ‘직활강하다’란 의미로 스키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양태와 아래로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즉 *scale*은 위로 올라가는 이동방향과 함께 몸동작에 의한 양태를 나타내고, *schuss*는 스키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과 함께 빠르게 내려가는 양태를 다 나타낸다. 따라서 양태와 이동방향이 상보적인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Goldberg (2010)는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0)에게 문제가 되었던 동사 *climb*도 양태와 이동방향의 두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동사로 본다.

- (27) a. The child climbed down the stairs.
 b. The plane climbed 1000 feet.
 c. Kelly climbed the tree.

(27a)의 동사 *climb*은 전치사구 *down the stairs*와 같이 쓰인 경우로 방향은 전치사 *down*이 나타내고, 자동사로 쓰인 *climb*은 양태만을 나타낸다. (27b)는 목적어 *1000 feet*와 같이 쓰인 타동사로 위로 이동한다는 방향을 나타낸다. (27c)는 목적어 *the tree*와 같이 쓰인 타동사로 양태와 방향 둘을 다 나타낸다. 그러나 Goldberg (2010)는 동사 *climb*은 이동양태와 이동방향의 의미가 같은 틀 안에 들어 있는데, (27a)의 경우 이동양태의 의미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들어난 경우이고, 이동방향은 배경으로 남아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27b)는 반대로 위로라는 이동방향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들어난 경우이고 이동양태는 배경으로 남아 있는 경우로 본다. (27c)는 이동양태와 위로라는 이동방향이 동시에 윤곽적인 모습으로 다 들어난 경우가 된다. 따라서 동사 *climb*의 경우 이동양태와 이동방향이 반드시 상보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태도 방향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어느 것이 더 윤곽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는 문맥과 맥락에 따라 정해져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4.2. 동사 climb의 사건구조와 윤곽부여원리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8)는 동사의 의미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건구조(event structure)라고 하였다. 동사를 의미적으로 상태동사, 양태의 행위동사, 순간적 상태변화의 기동동사(inchoatives), 사역적인 결과동사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사건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8) a. John is afraid.: [x <STATE>]
 b. John kicked the ball.: [x ACT <MANNER> y]
 c. John died.: [BECOME [x <RES-STATE>]]
 d. John melted the ice.: [[x ACT] CAUSE [BECOME [y <RES-STATE>]]]

(28a)와 같은 상태술어 be afraid는 [x <STATE>]처럼 x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하위사건(subevent)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순 사건구조(simple event structure)로 표현된다. (28b)와 같은 양태의 행위동사 kick도 [x ACT <MANNER> y]처럼 x가(y에 대해) 어떤 방식의 행위를 한다는 하위사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순 사건구조로 표현된다.⁷⁾ (28c)와 같은 상태변화의 기동동사 die는 [BECOME [x <RES-STATE>]] 처럼 x가 어떤 결과상태가 된다는 하위사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순 사건구조로 표현된다. 그러나 (28d)와 같은 사역적인 결과동사 melt는 x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원인의 하위사건 [x ACT]와 y가 어떤 결과상태가 된다는 결과의 하위사건 [BECOME [y <RES-STATE>]]이 인과관계(CAUSE)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사건구조(complex event structure)로 표현된다.⁸⁾

7) 2항 술어동사인 양태동사 sweep, scrub, rub 등의 구체적인 논항 실현의 경우를 보자.

- (i) a. Leslie swept (*the floor*) this morning.
 b. The child rubbed *the tiredness* out of his eyes.
 c. Cinderella scrubbed *her hands* raw.

동사 sweep, rub, scrub 등은 기본적으로 타동사로서 논항 두 개를 필요로 하는 2항 술어동사이다. 그러나 목적어가 통사적으로 생략될 수가 있다. 따라서 (i)에서처럼 순수 본질적 참여자인 논항 y는 생략되고, 동사의 의미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인 *the tiredness, her hands*를 목적으로 표현하여 결과구문으로 확대하여 쓰일 수 있다. 즉 통사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구조적 참여자와 동사의 의미상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순수 본질적 참여자의 논항 실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태동사의 사건구조 (28b)에서 대상 y는 의미상 필요한 본질적 참여자이지만 생략이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y처럼 밑줄을 쳐서 구별한다.

8) 결과동사는 양태동사 sweep, scrub 등과는 달리 목적어가 생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처럼

한편 이동양태동사와 이동결과동사의 경우를 보자.

- (29) a. John walked/rolled the ball in the park for an hour.
 b. John walked/rolled the ball *to the park* in an hour.

- (30) a. John enter the room.
 b. John left (Seoul).

(29)의 동사 *walk*과 *roll*은 이동양태동사로 (29a)처럼 그 어휘 자체만의 의미로는 이동경로의 방향을 나타내지 못한다. 단 (29b)처럼 이동경로의 목적지를 첨가해 줄 경우 이동결과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30)의 동사 *enter*, *leave*는 이동경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처소변화의 결과의미가 있는 이동결과동사이다. (30b)처럼 출발지의 처소노향이 생략되어도 결과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오히려 이동방법에 대한 양태의미는 어휘 의미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동양태동사와 이동결과동사가 서로 양보적이라는 예이다. 이때 (28)과 같은 Levin and Rappaport Hovav (2008)의 사건구조를 이용하여 이동양태동사 *walk*의 사건구조와 이동결과동사 *enter*의 사건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 (31) a. walk **E(e1)**: [x ACT <*walk*>]
 b. enter **E(e2)**: [BECOME [x BE-AT y]]

(31a)는 이동양태동사 *walk*의 사건구조로, x가 *walk*하는 방법으로 이동행위를 한다는 이동양태의 하위사건 e1 하나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e1)**의 의미구조이다. 즉 의미상 어휘부의 사건구조속에 이미 이동양태사건 **E(e1)**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있는 경우이다. (31b)는 이동결과동사 *enter*의 사건구조로, x가 y에 가 있다는 처소변화의 하위사건 e2 하나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e2)**로, 어휘부의 사건구조속에 이미 이동결과사건 **E(e2)**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있는 경우이다.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어를 동반한 결과구문도 만들 수 없다.

- (i) a. *Kelly broke again tonight when she did *the dishes*.
 b. *The clumsy child broke *the beauty* out of the vase.
 c. *The clumsy child broke *his knuckles* raw.

주어로 실현되는 구조적 참여자 x 논항은 말할 것 없고, 목적어로 실현되는 구조적 참여자 y 논항도 (ia)처럼 문맥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해서 생략될 수는 없다. 또 (ib,c)처럼 생각하고 비하위범주화된 목적이 결과구문으로도 쓰일 수 없다. 즉 결과동사의 복합 사건구조상의 두 개 참여자 x, y는 동사의 의미상 필요한 본질적인 참여자인 동시에 통사적으로도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구조적 참여자이다.

다음 문제가 되었던 동사 *climb*의 경우를 살펴보자.

- (32) a. The child climbed *down the stairs*.
 b. The plane climbed (1000 feet).
 c. Kelly climbed the tree.

(32a)의 동사 *climb*은 (29b)처럼 이동경로의 목적지를 첨가해 주어 이동결과구문으로 쓰인 경우로, 동사자체는 *walk*, *roll*처럼 이동양태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32b)의 동사 *climb*은 위로 올라간다는 이동방향을 나타내어 처소변화와 같은 이동결과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32c)의 동사 *climb*은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게 올라간다는 이동양태 의미와 그래서 나무위에 올라갔다는 처소변화의 이동결과 의미로 다 쓰인 경우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사건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 (33) a. climb e1: [x ACT <climb>]
 b. climb e2: [BECOME [x BE-UP < y >]]
 c. climb E(e1+e2): [[x ACT<climb>] & [BECOME [x BE-UP (y)]]]

(33a)는 이동양태동사로 쓰인 *climb*의 사건구조로, x가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게 이동한다는 이동양태(*climb*이라는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이동양태)를 나타내는 단순하위사건 e1의 의미구조이다. (33b)는 처소변화의 결과동사로 쓰인 *climb*의 사건구조로, x가 y위로 이동하여 올라가 있는(BE-UP) 상태가 된다는 단순하위사건 e2의 의미구조이다. 이때 y (유한 척도의 1000 feet)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밑줄을 쳐 구별하여 표시한다. (33c)는 이동양태와 처소변화의 두 의미로 다 쓰인 *climb*의 사건구조로, 두 하위사건 e1, e2가 서로 상보적이 아니라, 전체사건의 틀 안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동시에 연접적(&)으로 일어나는 통합사건구조 E(e1+e2)로 나타낸 것이다.⁹⁾ 즉 동사 *climb*이 이동양태사건 e1과 이동방향의

9)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9)는 다음 (ia)와 같은 자동사형 결과구문은 (ib)와 같은 인과관계의 복합사건구조로 아니라, (ic)와 같은 연접관계의 사건구조라고 보고 있다.

- (i) a. Susan ran to the house.
 b. [run (Susan)] CAUSE [BECOME be-at (house, Susan)]
 c. [run (Susan)] & [BECOME be-at (house, Susan)]

(ia)를 (ib)처럼 Susan이 뛰는 행위를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Susan이 집에 있게 되는 결과상태가 된다는 사역적인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iia)처럼, 사역적이라 해서 모두 복합사건구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 (ii) a. Casey waltzed out of the room. → Casey went out of the room by waltzing.
 b. The pond froze solid. ≠ The pond got solid by freezing.

(iia)의 경우 사역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인과관계의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할 수 있지만 (iib)는 비사역적인 관계이다. 즉 똑같이 자동사형 결과구문인데 일관성 없이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

때 이동양태의 의미로 쓰인 동사 climb과 명시적인 이동경로의 목표(goal)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down the stairs와 결합하여 전체문장으로 합성하여 생성될 때, 배경으로 남아있던 결과사건 e2는 취소되고, 명시적인 처소변화의 결과사건 [BECOME [x BE-DOWN <the stairs>]]와 공동합성 되는 것으로 본다.¹⁰⁾ (34b)는 어휘구조에서는 통합사건구조 E(e1+e2)으로 있던 동사 climb의 사건 구조가 (32b)의 문장으로 실현될 때, E(e1+e2)처럼 척도변화의 결과사건 e2:[BECOME [x BE-UP < 1000 feet>]]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즉 양태사건 e1은 전제인 배경으로 남아있고, 결과사건 e2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된 경우로 고딕체로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 (34c)는 Kelly가 증력에 대항하여 힘들게 이동한다는 양태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결과의 의미를 다 나타내는 (32c)의 문장으로 실현될 때, E(e1+e2)처럼 이동양태사건 e1: [x ACT<climb>]과 처소변화의 결과사건 e2:[BECOME [x BE-UP < tree >]]이 모두 다 윤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¹¹⁾

- 10) Pustejovsky (1995:122)는 다음과 같이 동사 bake가 상태변화의 의미로도, 창조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성에 대해 어휘규칙이나,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 등과 같은 보충어 (complement)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i) a. Mary baked the potato.
b. Mary baked the cake.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나열적 어휘 의미이론들이 우연적 다의성과 논리적 다의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논리적 다의성은 같은 어휘 항목이 논리적으로 관련된 단어 의미들을 나타낼 경우를 말하는 경우로, 위의 동사 bake의 다의성도 바로 이런 논리적 다의성에 해당된다. 이때 이와 같은 bake의 둘 이상의 의미를 흔히 어휘규칙으로 설명한다고 하나, 어휘부에 bake1과 bake2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나열적인 의미기술 방식은 두 의미사이의 긴밀한 의미상의 관련성을 생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만 나타낼 뿐이다. Pustejovsky (1995:122)는 bake의 다의적인 두 의미는 동사의 의미와 목적어의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두 의미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동사구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공동-합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 보충어인 목적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동동사에서 목표(goal)의 전치사구도 보충어로서 공동합성으로 설명한다.

(ii) a. The bottle is floating in the river.

b. The bottle floated under the bridge.

(iia)의 동사 float는 단순히 이동하는 이동양태의 행위동사의 의미로 쓰였지만, (iib)의 이동 양태 동사 float는 under the bridge와 공동 합성하여 이동 완료된 이동결과구문의 의미로 쓰인다.

- 11) 익명의 논평자는 break와 같은 경우 결과를 나타내는 하위사건만을 윤곽부여 하여 비대격화 (unaccusative)한, 다음 (ia)가 가능한데, climb의 경우는 왜 (ib)처럼 비대격화가 안되는지 설명이 없어 ad-hoc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i) a. John broke the window. → The window broke.

b. John climbed the tree. → *The tree climbed.

이때 (ia)와 같은 상태변화의 결과동사 break는 [[x ACT] CAUSE [BECOME [y<BROKEN>]]]와 같은 복합사건구조로, x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 y가 부서졌다는 의미로 행위의 하위사건 e0과 결과의 하위사건 e2가 인과관계(CAUSE)에 있는 복합사건구조 E(e0 → e2)이다. 이때 전체 사건 E와 결과의 상태변화 사건 e2 중 어떤 사건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는지는 어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미명세에 있다가, 실제 문장으로 실현되는 문맥에서 맥락에 따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경우 전체사건 E(e0 → e2)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실현된다. 결과상태의 자동사로 쓰일 경우 결과의 하위사건 E(e → e2)만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실현된다. 즉 어휘부에서는 E/e2 간의 미명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동동사

이와 같이 동사 *climb*의 미명시적인 통합사건구조의 어휘구조와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에 의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에서 동사 *climb*은 이동양태동사인 데 결과동사로 쓰인 경우라도 이접적이라 상보성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결과동사로 쓰인 경우 어떻게 별안간 없었던 결과의 의미가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이동양태의 의미에서 별안간 어휘의미에 없었던 결과의 의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미구조에는 비명시적으로 두 의미가 다 들어 있었는데, 맥락에 의해 명시적으로 윤곽부여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상태변화의 결과동사에서 비슷하게 다의적으로 쓰이는 동사들 간의 차이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 (35) a. John hit (at) the ball./*The ball hit.
 b. John broke (*at) the vase./The vase broke.
 c. John killed (*at) the rabbit./*The rabbit killed.
 d. The rabbit died./*John died the rabbit.

(35a)의 동사 *hit*는 전치사 *at*을 동반하여 시도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또 결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태변화의 자동사로도 쓰일 수 없다. 즉 전형적인 양태동사이다. 반면 (35b)의 동사 *break*는 시도구문으로 쓰일 수 없는 타동사로, 상태변화의 결과의미만 나타내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사역적인 상태변화의 결과동사이다. (35c)의 동사 *kill*은 시도구문으로 쓰일 수 없는 결과동사이지만, 결과상태만을 나타내는 자동사로는 쓰이지 못하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사역적인 결과동사이다. (35d)의 동사 *die*는 상태변화의 자동사로만 쓰이는 기동동사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구조의 어휘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 (36) a. hit E1(e1): [x ACT _{<hit>} y]
 b. die E(e2): [BECOME [x <DEAD>]]

*climb*은 [[x ACT_{<climb>}] & [BECOME [x BE-UP (y)]]]와 같은 통합사건구조로, x가 중력에 대항하여 힘들게(*climb*이라는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이동양태의 하위사건 e1과 그와 동시에 x가 위로 올라간다(또는 y 위에 있게 된다)는 처소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하위사건 e2가 연결 (&)관계에 있는 통합사건구조 E(e1+e2)이다. 어휘부에서는 전체사건 E와 구성성분인 하위사건 e1, e2 중 어느 사건이 모습으로 윤곽부여 되지 않은 채 미명세(E/e1/e2)로 있다가, 실제 어휘를 생성해 쓰는 화용적인 문맥에서 세 사건(E/e1/e2) 중 어느 한 사건이 모습으로 윤곽부여 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e1과 e2의 관계는 사역적인 관계가 아니고 연결관계이고, e2는 사역적인 결과상태가 아니라 이동방향을 나타내는 [BECOME [x BE-UP (y)]]이므로 (ib)와 같은 비대격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c. kill $E(e0 \rightarrow e2)$: [[x ACT] CAUSE [BECOME [y<DEAD>]]]
 d. break $E(e0 \rightarrow e2)$: [[x ACT] CAUSE [BECOME [y<BROKEN>]]]

(36a)는 행위양태동사 hit의 사건구조로, x가 hit하는 방법으로 행위를 한다는 행위양태의 하위사건 e1 하나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e1)$ 의 어휘구조이다. 즉 어휘적으로 행위양태사건의 의미로 굳어져, $E(e1)$ 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된 경우이다. (36b)는 상태변화의 기동동사 die의 사건구조로, x가 죽은 상태가 된다는 상태변화의 하위사건 e2 하나로만 구성된 단순사건구조 $E(e2)$ 의 어휘구조이다. 어휘적으로 상태변화의 결과사건 의미로 굳어져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있다. (36c)는 사역적인 상태변화의 결과동사 kill의 사건구조로, x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행위의 하위사건 e0와 y가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결과의 하위사건 e2가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 $E(e0 \rightarrow e2)$ 이다. 어휘적으로 사역적인 타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복합사건구조 $E(e0 \rightarrow e2)$ 전체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된 경우이다. (36d)는 결과동사 break의 복합사건구조로, x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 y가 부서졌다는 의미로 행위의 하위사건 e0와 결과의 하위사건 e2가 인과관계에 있는 복합사건구조 $E(e0 \rightarrow e2)$ 이다. 이때 전체사건 E와 하위사건 e2 중 어떤 사건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는지는 어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미명세 상태에 있다가, 실제 문장으로 실현되는 문맥에서 맥락에 따라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일 경우 전체사건 $E(e0 \rightarrow e2)$ 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실현되고, 결과상태의 자동사로 쓰일 경우 $E(e0 \rightarrow e2)$ 처럼 결과의 하위사건 e2만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하위사건

12) 익명의 논평자는 kill은 E로 윤곽부여되어 명세화되어 있고, break는 윤곽부여되지 않은 채 E/e2 간의 미명세이고, climb은 E/e1/e2 간의 미명세라는 것이 ad-hoc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각 어휘가 갖고 있는 독특한(idiosyncratic) 의미특성으로 그렇게 양정(convention)적으로 정해져 쓰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김경학(2013)에서 사역적인 상태변화의 동사 cut도 다음처럼 다의적으로 쓰이므로 E/e1/e2 간의 미명세로 보고 있다.

- (i) a. John cut the bread. /*The bread cut.
 b. John cut the rope. → The rope cut.
 c. John cut at the bread.

따라서 (ic)처럼 행위양태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동사 cut은 어휘부에서 $E(e1 \rightarrow e2)$: [[x ACT<cut> y] CAUSE [BECOME [y <CUT>]]]와 같은 행위의 양태사건 e1을 포함한 복합사건구조로 분석하였다. 즉 E/e1/e2 간의 미명세 상태로 본다. 따라서 다음 (ii)처럼 위 (i)의 문맥에서 각 사건구조로 윤곽부여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 (ii) a. $E(e1 \rightarrow e2)$: [[x ACT<cut> y] CAUSE [BECOME [y <CUT>]]]
 b. $E(e1 \rightarrow e2)$: [BECOME [y <CUT>]]
 c. $E(e1 \rightarrow e2)$: [x ACT<cut> y]

이때 상태변화의 결과동사 break는 $E(e0 \rightarrow e2)$: [[x ACT] CAUSE [BECOME [y<BROKEN>]]]와 같은 복합사건구조로 분석된다. 즉 x가 cut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iic)의 행위양태사건 e1: [x ACT<cut> y]과 달리, x가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행위양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막연히 행위를 한다는 행위사건 e0: [x ACT]이므로 명세화되어 윤곽부여를 받지 못하는 e0로 표시하여, 간접적으로 E/e2 간의 미명세 상태임을 나타내어 이를 구별하고자 한다.

으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와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는 비슷하게 동사의 다의성을 설명하여도, 어휘규칙처럼 어휘부의 사건구조속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휘 의미를 나타내는 사건구조속에서는 각 하위사건이 미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통합사건구조로 있었는데, 실제 문장으로 생성되거나 해석할 때 맥락에 따라 미명세 되어있던 각 하위사건 중 어느 사건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생성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동사의 다의성을 설명하여도 어휘규칙이나, 기존의 나열식 설명보다, 다의동사의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양태-결과 동사의 상보성에 대해 살펴보고, 반례처럼 보이는 동사 *climb*의 경우 별도의 통합사건구조를 설정하여 윤곽부여원리로 설명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Levin & Rappaport Hovav (2010) 등을 중심으로 논항교체에 의한 양태동사, 결과동사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양태-결과동사의 상보성의 반례처럼 보이는 동사 *climb*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절에서는 틀 의미론의 윤곽부여원리의 입장에서 양태동사와 결과동사의 상보성이 잘못 되었음을 살펴보고, 순수 이동동사 및 결과동사와 별도로 동사 *climb*의 사건구조를 제시하여 윤곽부여원리에 따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동사 *climb*의 통합사건구조의 어휘구조와 윤곽부여원리에 의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Levin and Rappaport Hovav (2010)는 동사 *climb*이 원래 이동양태동사인데 결과동사로 쓰인 경우라도 이접적이라 상보성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결과동사로 쓰인 경우 어떻게 별안간 없었던 결과의 의미가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다의적인 이동동사 *climb*을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walk* 등의 이동양태동사와 *enter* 등의 이동결과동사와의 차이를 사건구조의 어휘구조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동양태동사는 어휘구조속에 이미 이동양태사건 **E(e1)**이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있는 단순사건구조로 분석되어 있고, 이동결과동사는 어휘구조속에 이미 이동결과사건 **E(e2)**가 윤곽적인 모습으로 부각되어 있는 단순사건구조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의적인 이동동사 *climb*은 어휘구조속에 어느 사건으로도

(iii) a. **E(e0→e2)**: [[x ACT] CAUSE [BECOME [y <BROKEN>]]]
 b. **E(e0→e2)**: [BECOME [y <BROKEN>]]]

윤곽 부여되지 않은 미명세의 통합사건구조 E(e1+e2)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와 통사적인 논항실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상태변화의 동사 **break**, **kill**, **die** 등에도 적용되어, 행위의 양태동사 **hit**과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논항 실현의 차이도 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넷째 어휘규칙이나, 화용규칙에 의한 기존의 나열식 설명보다, 생성되어 도출된 여러 의미간의 상관성을 윤곽부여와 배경으로 서로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학. (2004).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과 어휘 의미구조” 어학연구 40-3 573-595.
- 김경학. (2013). “양태-결과동사의 상보성과 동사 **cut**에 대해” 언어 38-1, 67-86.
- Bohnenmeyer, J. (2007). “Morpholexical Transparency and the Argument Structure of Verbs of Cutting and Breaking”, *Cognitive Linguistics* 18, 153-177.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Fillmore, C. J. (1982). “Toward a Descriptive Framework of Spatial Deixis”, in R.J. Jarvella and W. Klein, eds., *Speech, Place and Action*, John Wiley, London.
- Geuder, W. (2009). “Descendre en grim pant: Une ‘etude contrastive de l’interaction entre d’eplacement et mani’ere de mouvement”, *Langages* 175, 123-139.
- Geuder, W. and M. Weisgerber. (2008). “Manner of Movement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Force”, slides, Journ’ee d’etude “Il’y a mani’ere et mani’ere”, Universit’e d’artois, Arras, France.
- Goldberg, Adel E. (2010). “Verbs, Constructions and Semantic Frames”, in E. Doron, M. Rappaport Hovav, and I. Sichel, eds., *Syntax, Lexical Semantics, and Event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39-58.
- Jackendoff, Ray. (1985). “Multiple Subcategorization and the Theta-Criterion: The Case of Climb”,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 271-295.
- Kiparsky, P. (1997). “Remarks on Denominal Verbs” in A. Alsina, J. Bresnan, and P. Sells, eds. *Complex Predicates*, CSLI Publications, 473-499.
- Koontz-Garboden, Andrew, and John Beavers. (2011). “Manner and result in verbal meaning”.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s.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eth. (2009) "Where Do Verb Classes Come From?", handout, Verb Typologies Revisited: A Cross-linguistic Reflection on Verbs and Verb Classes, Ghent University, Ghent, Belgium.
- Levin, Beth. and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26, MIT Press.
- Levin, Beth. and M. Rappaport Hovav. (1999). "Two Structures for Compositionally Derived Events", *SALT* 9, 199-223.
- Levin, Beth. and M. Rappaport Hovav. (2008). "Lexical Conceptual Structure", in K. von Stechow, C. Maienborn, and P.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Mouton de Gruyter, Berlin.
- Levin, Beth. and M. Rappaport Hovav. (2011). "Lexicalized Meaning and Manner/Result Complementarity", in B. Arsenijević, B. Gehrke, and R. Marín, eds, *The Subatomic Semantics of Event Predicates*, Springer, Dordrecht.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Cambridge.
- Rappaport Hovav, Malka and Beth Levin. (2001). "An Event Structure Account of English Resultatives". *Language*, 77. 766-797.
- Rappaport Hovav, Malka and Beth Levin. (2010). "Reflections on Manner/Result Complementarity", in M. Rappaport Hovav, E. Doron, and I. Sichel (eds.), *Syntax, Lexical Semantics, and Event 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38.

김경학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khkim@suwon.ac.kr

접수일자 : 2014. 2. 24

수정본 접수 : 2014. 9. 2

게재결정 : 2014. 10. 28